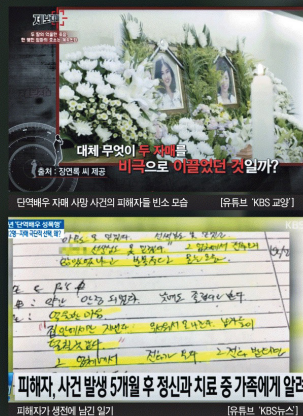


기사 속 A씨들을 위한 작은 위로

“단역배우 자매 모, 가해자에 배상하라”



두 딸 잃은 어머니는 매일 지옥을 산다

헤럴드경제

안세연 기자



법원엔 언제나 굵직한 사건이 쏟아진다. 정치인, 연예인, 대기업 사건엔 방청석이 기자로 가득 찬다. 이들의 발언, 변호인·검사의 공방, 변호사의 입장은 사소한 것도 모두 기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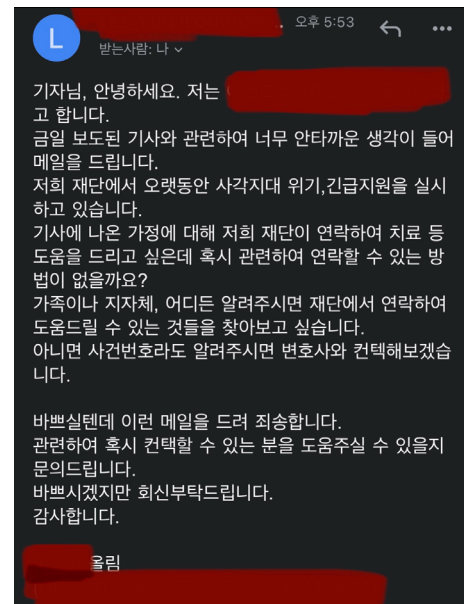
하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법정도 있다.

혐의명 살인미수. 어머니가 초등학교 두 아들에게 “같이 죽자”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린 결과였다. 첫째 아들은 저항했다. 둘째 아들이 도망쳐 도움을 구했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 이후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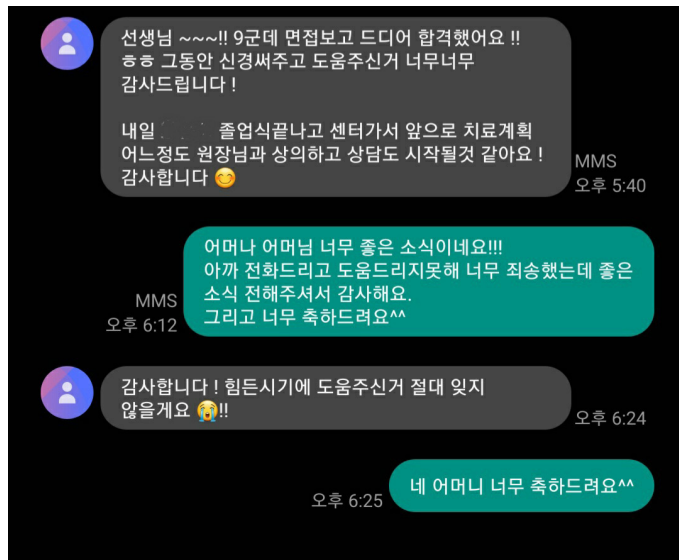
재판 내내 법정은 썰렁했다. 기자가 거의 없었다. 사실 서초동에서 이 정도 사건은 ‘썰고 썰다’. 피고인석에 앉은 어머니를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재판장의 주문을 노트북으로 받아적는 것에 집중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두 아들의 “엄마와 그래도 살고 싶다”는 말 때문이었다. 30분 만에 원고지



해당 기사를 읽은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치료 및 지원 의사를 밝히며 어머니의 연락처를 문의했다.(이메일 캡처)



기사 속 어머니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 지원 덕분에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이랜드 복지재단 제공

6매 분량으로 처리했다. 다른 범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고지 6매로 처리한 이 ‘쌔고 썸’ 사건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줄 몰랐다. 다음 날, 기사를 읽은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해당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이메일을 보냈다. 법원 공보관을 통해 어머니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재단은 “기사 덕분에 위기 가정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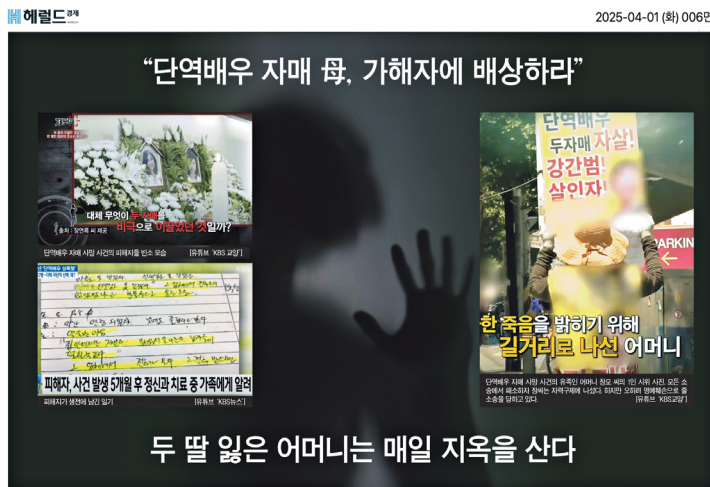
재단에선 생계비 300만원과 가족 상담비 200만원을 지원했다. 가정 방문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격주로 가정을 방문했다. 덕분에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4년 전의 이야기다. 최근 어머니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어머니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두 아들은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이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잘 따른다고 한다. 재단 측은 “종종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다”며 “안부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한 판사에 게 어머니의 근황을 전달했다. 그는 “선고 당시 아이들을 위한 판단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었다”며 안도했다. 이어 “기사가 나간 덕분에 도움의 손길이 닿았다”며 공을 돌렸다.

서초동을 취재한 지 7년. 법원엔 온갖

2026 기자의 세상보기



2009년 8월, 아토피 18층에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월 뒤 그의 아들중생도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두 딸을 잃은 총 두 부모가 어린 아들만을 혼자 키우게 되었다.

한 가족이 이렇게 분열된다. 학교를 발라 버리고, '다들아'고 외치고, '분열'을 외치는 아이의 모습이

‘계산도 안한 시간, 사고, 교육, 환경, 노동 등이 세상의 삶에있는 아이를 생생하게 전하는 매체도공짜의인물인물 콘텐츠입니다.

이제 심복들 심추형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존재할 수 있는 소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개자를 좀 나누고 처벌받지 않았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책임도 지지 않았다. 관련 행사 시간에는 법원이 '공판력의 총체적 심판을 지체한다'고 유죄를 유예할 정도였다."

은 어머니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1인당 300만~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되짚어 보자.

▶12월에서 성별지 파헤치-고수 취소하며 처벌 면제
 «시간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30세 되는 통령의 소개로 영호-쓰리라 보조출
 연자 일을 시작했다. 바퀴의 뒷안이었다. A씨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3개월간 직장에서 만난
 1.1.1. 419호, 420호, 421호, 422호, 423호, 424호, 425호, 426호, 427호, 428호, 429호, 430호, 431호, 432호, 433호, 434호, 435호, 436호, 437호, 438호, 439호, 440호, 441호, 442호, 443호, 444호, 445호, 446호, 447호, 448호, 449호, 450호, 451호, 452호, 453호, 454호, 455호, 456호, 457호, 458호, 459호, 460호, 461호, 462호, 463호, 464호, 465호, 466호, 467호, 468호, 469호, 470호, 471호, 472호, 473호, 474호, 475호, 476호, 477호, 478호, 479호, 480호, 481호, 482호, 483호, 484호, 485호, 486호, 487호, 488호, 489호, 490호, 491호, 492호, 493호, 494호, 495호, 496호, 497호, 498호, 499호, 500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 509호, 510호, 511호, 512호, 513호, 514호, 515호, 516호, 517호, 518호, 519호, 520호, 521호, 522호, 523호, 524호, 525호, 526호, 527호, 528호, 529호, 530호, 531호, 532호, 533호, 534호, 535호, 536호, 537호, 538호, 539호, 540호, 541호, 542호, 543호, 544호, 545호, 546호, 547호, 548호, 549호, 550호, 551호, 552호, 553호, 554호, 555호, 556호, 557호, 558호, 559호, 560호, 561호, 562호, 563호, 564호, 565호, 566호, 567호, 568호, 569호, 570호, 571호, 572호, 573호, 574호, 575호, 576호, 577호, 578호, 579호, 580호, 581호, 582호, 583호, 584호, 585호, 586호, 587호, 588호, 589호, 590호, 591호, 592호, 593호, 594호, 595호, 596호, 597호, 598호, 599호, 600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 605호, 606호, 607호, 608호, 609호, 610호, 611호, 612호, 613호, 614호, 615호, 616호, 617호, 618호, 619호, 620호, 621호, 622호, 623호, 624호, 625호, 626호, 627호, 628호, 629호, 630호, 631호, 632호, 633호, 634호, 635호, 636호, 637호, 638호, 639호, 640호, 641호, 642호, 643호, 644호, 645호, 646호, 647호, 648호, 649호, 650호, 651호, 652호, 653호, 654호, 655호, 656호, 657호, 658호, 659호, 660호, 661호, 662호, 663호, 664호, 665호, 666호, 667호, 668호, 669호, 670호, 671호, 672호, 673호, 674호, 675호, 676호, 677호, 678호, 679호, 680호, 681호, 682호, 683호, 684호, 685호, 686호, 687호, 688호, 689호, 690호, 691호, 692호, 693호, 694호, 695호, 696호, 697호, 698호, 699호, 700호, 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5호, 706호, 707호, 708호, 709호, 710호, 711호, 712호, 713호, 714호, 715호, 716호, 717호, 718호, 719호, 720호, 721호, 722호, 723호, 724호, 725호, 726호, 727호, 728호, 729호, 730호, 731호, 732호, 733호, 734호, 735호, 736호, 737호, 738호, 739호, 740호, 741호, 742호, 743호, 744호, 745호, 746호, 747호, 748호, 749호, 750호, 751호, 752호, 753호, 754호, 755호, 756호, 757호, 758호, 759호, 760호, 761호, 762호, 763호, 764호, 765호, 766호, 767호, 768호, 769호, 770호, 771호, 772호, 773호, 774호, 775호, 776호, 777호, 778호, 779호, 780호, 781호, 782호, 783호, 784호, 785호, 786호, 787호, 788호, 789호, 790호, 791호, 792호, 793호, 794호, 795호, 796호, 797호, 798호, 799호, 800호, 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 806호, 807호, 808호, 809호, 810호, 811호, 812호, 813호, 814호, 815호, 816호, 817호, 818호, 819호, 820호, 821호, 822호, 823호, 824호, 825호, 826호, 827호, 828호, 829호, 830호, 831호, 832호, 833호, 834호, 835호, 836호, 837호, 838호, 839호, 840호, 841호, 842호, 843호, 844호, 845호, 846호, 847호, 848호, 849호, 850호, 851호, 852호, 853호, 854호, 855호, 856호, 857호, 858호, 859호, 860호, 861호, 862호, 863호, 864호, 865호, 866호, 867호, 868호, 869호, 870호, 871호, 872호, 873호, 874호, 875호, 876호, 877호, 878호, 879호, 880호, 881호, 882호, 883호, 884호, 885호, 886호, 887호, 888호, 889호, 890호, 891호, 892호, 893호, 894호, 895호, 896호, 897호, 898호, 899호, 900호, 901호, 902호, 903호, 904호, 905호, 906호, 907호, 908호, 909호, 910호, 911호, 912호, 913호, 914호, 915호, 916호, 917호, 918호, 919호, 920호, 921호, 922호, 923호, 924호, 925호, 926호, 927호, 928호, 929호, 930호, 931호, 932호, 933호, 934호, 935호, 936호, 937호, 938호, 939호, 940호, 941호, 942호, 943호, 944호, 945호, 946호, 947호, 948호, 949호, 950호, 951호, 952호, 953호, 954호, 955호, 956호, 957호, 958호, 959호, 960호, 961호, 962호, 963호, 964호, 965호, 966호, 967호, 968호, 969호, 970호, 971호, 972호, 973호, 974호, 975호, 976호, 977호, 978호, 979호, 980호, 981호, 982호, 983호, 984호, 985호, 986호, 987호, 988호, 989호, 990호, 991호, 992호, 993호, 994호, 995호, 996호, 997호, 998호, 999호, 1000호, 1001호, 1002호, 1003호, 1004호, 1005호, 1006호, 1007호, 1008호, 1009호, 1010호, 1011호, 1012호, 1013호, 1014호, 1015호, 1016호, 1017호, 1018호, 1019호, 1020호, 1021호, 1022호, 1023호, 1024호, 1025호, 1026호, 1027호, 1028호, 1029호, 1030호, 1031호, 1032호, 1033호, 1034호, 1035호, 1036호, 1037호, 1038호, 1039호, 1040호, 1041호, 1042호, 1043호, 1044호, 1045호, 1046호, 1047호, 1048호, 1049호, 1050호, 1051호, 1052호, 1053호, 1054호, 1055호, 1056호, 1057호, 1058호, 1059호, 1060호, 1061호, 1062호, 1063호, 1064호, 1065호, 1066호, 1067호, 1068호, 1069호, 1070호, 10

[illegible][illegible]

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해도 성폭행 성추행은 천고일고다. 천고일고는 희미해지고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해 내릴 수 없다. 법원은 결국 12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출근은 어려움. 민씨소송한지엔 소모임도 재나 부회를 천고일고에 장세를 뒀다한다

당시 비론은 "가폭을 증명하면(성폭행 등) 고소 내용은 가폭자 기능성에 상한지 없다"고 일제 상판과도 인정되는 4명과 A씨가 비법상적인 성폭행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고소를 취했고 고소자 각각과 때론에 만났지만 재위

법원은 '공권력이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표현한 채 그 실체에서 비롯된 어머니의 잘못된
적응행위를 단죄하는 것은 공권력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재판을 기각하고, 상급법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판이 모두 취소됐다. 민법소송심판이 취소되면 이 때 자기가 패배하였다. 성북동 불쌍부터 9년 6개월이 지난 후에였다.

당시 법원은 '불쌍은 신원불복에 따르는 A 씨의 불쌍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이라 하여 '불쌍은 공판의 한 부분으로서 공판의 총체적 심판을 자백하고 변명한다'며 '불공판'을 개시하게 해 책임을 불공판으로 장악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못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illegible]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씨의 손해배상액이 눈덩이 불어 나고 있었다.

법조계와 파벌의 개입이 중 한 명이 장씨를 대표 1위를 할 경우 결과, 일부가 받아들여

2009년 10월 18일

한은 최근 장씨가 가해자에게 1000만원을 상환하고 반려했다. 또 장씨가 피의상 인위 등에 가해자를 특정한 글을 올리자 말고, 결국 경우 1회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다. 1심 재판부도 "장씨의 두 말에 전위가 발 지 않은 상복면 피해 2차 가해도 정신적

하지만 재판부는 장리가 거행자의 회사 앞
상가 건물으로 목적물 신임을 한 장리 비수출

한가운데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풍경이 삼았다. 재관부는 "이 과정에서 정책이 실을 직접 거뒀을까요, 사실상 특권이 가능한 세 사회적 편란을 확산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외 복복해 함소하면서 2상이 서울고법에서 열

-박지현 기자

이처럼만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계 3명도 정부를 상대로 병역불응을 이유로 관세청 소환을 내고, 같은 순서로 취직된 4명도 소환됐다. 가계자들에게 12월 말 300만~400만원의 병상환급금 12달에 이어 연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 사건 속 피
기사로 다뤘다.

나 미나
단역배우 자매의 기사를 읽고 메일은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 안세연

아예 오후 9:32

하루 아침에 자식을 돌이나 읽고 남편까지 허망하게 보낸 그 심정이 어떻게 차마 상상으로 함수가 없네요.. 적게나마 어머니께 금전적으로 매달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은 익명의 독자가 이메일로 어머니에게 후원 의사를 밝혔다(이메일 캡처)

세상의 비극이 모여든다. 이중 ‘쌔고 썸’ 사건은 주목받지 못한다. 특히, 일반인들의 비극은 정치인, 연예인, 대기업 사건에 묻히기 마련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작은 기사가 도움의 손길로 이어질 때가 있다.

이때부터였다. 작은 사건이라도, 필요

가 있다면 작게 쓰지 않았다. 보통 판결 기사는 원고지 3~4매를 넘기 어렵다. 사회의 주목을 받는 정치인의 대형 사건도 10매를 넘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인의 이야기에 20매를 넘게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비극이, 비극에서 끝나지 않도록.

형식도 단편적인 스트레이트로 쓰지 않았다. 꼭 찬 하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았다. 독자들이 사건에 대해 공감하고, 상황에 대해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지원 덕분에 온라인 뿐 아니라 지면도 한 면을 모두 사용했다.

효과가 있었다. 길고 긴 기사를 독자들은 끝까지 읽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다. “기사 속 당사자를 돕고 싶다”는 연락이 주기적으로 왔다. 독자들은 안타까워했다. 사건을 남 일로 여기지 않았다. 육아, 사기, 출산, 스토킹 등의 문제 상황에 공감했다. ‘나라도 저 상황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 이라고 했다.

뒤바뀐 피해자와 가해자...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지난 2009년에 있었던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이야기다. 자매 중 언니가 직장에서 방송기획사 관계자 12명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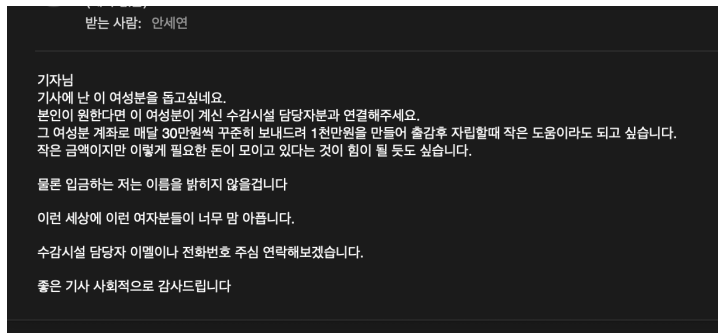
을 떠났다. 6일 뒤 여동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딸을 잃은 충격에 부친 역시 뇌출혈로 숨졌다. 어머니만 홀로 살아 남았다.

가해자들은 아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폭행은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웠다. 유족이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도 잊혔다. 하지만 취재한 결과,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어머니의 1인 시위를 문제 삼았다. 명예를 훼손했다며 줄소송을 걸어 승소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이 이대로 잊혀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오히려 가해자가 됐고, 가해자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된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이미 알려진 사건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도 20매가 넘게 썼다. 독자들은 분노했다. 다시 공론화가 이뤄졌다. 며칠



기사를 읽은 익명의 독자가 이메일로 어머니에게 후원 의사를 밝혔다. (이메일 캡처)



다. 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이 참작됐다. 친모는 임신 중절 수술 5일 전, 원룸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했다. 산후조리는 없었다. 겨울날, 아이를 베란다에 방치한 채 식당에서 새벽 5시까지 일했다.

친모에겐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어릴

때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당했다. 성인이 된 뒤엔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카드 빚 400만원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택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친모를 응원했다.

기사를 쓸지말지 고민이 됐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도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기사를 썼다가 오히려 친모를 욕하는 독자가 더 많을까 봐 걱정됐다. 고민 끝에 법원이 선처를 택한 이유를 자세히 썼다. 당시 친모가 사회적·심리적으로 어떻게 고립됐는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기사엔 악플이 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친모를 응원하는 댓글이 800개에 달하는 공감을 받았다. “꼭 간호사가 되라”는 내용이었다. 익명의 독자가 이번에도 이메일로 후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매월 30만원씩 1000만원을 보내고 싶다”며 “출소 후 친모가 자립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결별 통보에 협박·스토킹한 BJ...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다

한 BJ가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스톱킹했다. 폭행하고, 협박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자신의 방송에서 폭로했다.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 허위 사실을 알렸다. 언론사에 허위로 제보했다.

피해자는 BJ를 고소했다. 버티고 버텼다. 가족에게 “그 사람 감옥 안 가면 죽

어버릴거야”라고 했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피해자는 선고 1개월 뒤 자신의 말대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동생에게 유언을 남겼다. “끝까지 단죄하는 걸 네가 봐야 해. 그게 누나 유지야.”

피해자가 숨을 거뒀는데도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작았다. 유족은 5억원을 청구했지만 1500만원만 인정됐다. 유족은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고도 항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죽음과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라며 “이를 행사한 것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개인에겐 비극이지만, 이 사건 역시 서초동에선 켜고 켜 교제폭력 사건 중 하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공론화를 원했다. 유족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실명과 영정 사진을 담았다. 유족에게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다”며 “할 수 있는 게

결별통보에 협박·스토킹 방송한 BJ...30대 여성 무너진 삶



세상&플러스

‘세상&플러스’는 헤럴드경제의 사회 특과 연재 기자인 ‘세상’의 프리마임 콘텐츠입니다. 사건, 사고, 노동, 환경, 교육, 복지 등 세상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생생하고 깊이있는 분석으로 전해 드립니다.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HeradPlus’의 프리마임 사회 콘텐츠 ‘세상&플러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BJ “다시 만나자”며 강요·협박 반복
1심서 모든 혐의 인정에도 집행유예
“법 믿었지만 보호 못받아” 극단 선택
유족, 인과관계 입증하기 위해 항소

살의 바람으로 떠돌았다. 그날 새벽에 표현되지 않았다.
불과 2개월 만인 유령 BJ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이 시작이었다. BJ는 30대 여성 권나은 씨의 사생활을 방송에서 폭로했다.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했다. “다시 만나자”는 협박·스토킹이 끊이지 않았다.
“인물 건 법”에서 없었다. 권씨는 가족에게 “다시 사랑 주지 않 거냐”며 폭언·협박을 당했다. 병학살처럼 잔인하게 사지 공격 받았다. 하지만 권씨는 가려와 달랐다. 상황이 아닌 권나은 씨였다.
2023년 2월, 권씨의 딸은 현상을 했다. 그는 악랄 과다복용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7개월 뒤 사망했다. 흉상방이 치병과 1500만원에 불과한 약값으로 인해 권씨는 살의 대미지 순간까지 발을 뒀었다.
“공직 단죄하는 걸 내가 봐야 해. 그게 누나 유족이.” 권씨가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였다. 권씨는 권씨를 해친 권씨의 유족을 만나 그가 겪은 일을 정리했다.
권씨는 고향 부산에서 2014년 A씨와 2020년



고 권나은 씨의 빈소 모습. 양쪽이 국화로 장식돼 있다.권씨는 유족의 통보를 받아 사전을 공개했다. [2024년 8월 유족 제공]

2월부터 4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해당 분야의 유명 BJ로 누적 시청자가 300만명에 달했다. 주시각성때 무자비 권상이 없었던 권씨는 연인 방송을 찾아보거나 직접 1인 방송을 했다. 그러나 A씨를 알게 되고, 약 2개월간 둘은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A씨는 권씨의 결혼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제를 강요했고, 권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개인방송, 게시물, 시청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오가며 협박했다.
급기야 A씨는 2023년 5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을 통해 ‘발광 환각증’에 내렸 다’며 권씨의 개인 소지품, 속옷 등을 공개했다. “중대범죄” 방송금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게요” 유류해에도 영상을 하나 찍을게요. 영상을 하나 보내주세요” “나아가서 어떤 사망인지 내가 모르면 얘 얘기할 게요. 순수한 의도는 나만 있었던 거야” “개인적인 얘기할도 아닐 수 있어 다 좋아야 함. 스코십 이런 거 말해서 이해가 잘”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실상 권씨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때부터 권씨는 버렸다. A씨에게 “다시 사랑 주지 않 거냐”고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스코십 때문에 하든 다 수습할 수 있거냐”며 “만약 내 해로 해결하지는 건데 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냐”고 반복했다.
A씨의 협박은 개인 방송에서만 머물지 않았

다. 그는 권씨가 대가없이 KT 홍보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해당 회사 윤리경영실 게시물에 “권나은에게 무자비 등 정서적 학대”와 “대미지폭행을 당했다. 권나은이 반인을 만 날 때 발가등발 사용했 것 같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같은 교제 요구, 협박, 스톱 행위는 수십 회 이상 지속됐다. 그중에도 권씨는 버렸다. 방송을 했다.
권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톱킹 범행이 시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없었다. 소송은 무려 2년간 이어졌다. 긴 시간을 버틴 끝에 법원은 승방방이 처벌되었다.
인한지법 형사13과2 권영관 판사는 2023년 2월 A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서적 고통이 상당 했다”면서도 “법정행위를 초래하는 형사처벌 전 해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인정 이유를 밝혔다.
권씨의 상심은 컸다. 선고 직후 회사 상사에 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A씨의 아

내가 임신 중인 걸 들이 고며쳐 감사가 구형한 중에 3년 살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결정했다. 3년 동안 스트레스로 건강도 좋지 못한 채 외면 속에 감히 지냈는데 처벌이 낮아서 상처가 크다”고 했다.
이어 “법원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이후 결혼해 가정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선고 이후 20일 뒤, 권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20여개를 남겼다. “○○○아, 누나! 하고 있는 재판이 있어. 나! 형제가 해” “법까지 단죄하는 걸 내가 봐야 해. 그게 누나 유족이” “또 봐요! 정신 더 혼미해지기 전에 말해야 하는데” “죽어사라요! 잡지고 싶어. 항상 괴곤했어” 등의 메시지가였다.
극단적 선택 시도 후 혼수상태에 빠진 권씨를 간호하기 위해 가족들은 그가 입원했던 요양병원 10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거처를 옮겼다. 거기에 살던 서울 서대문구의 집도 내놓았다. 하지만 권씨는 깨어지지 못했다. 7개월 뒤 코로트·19강점으로 사망했다.
권씨의 마지막 바람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2심과 3심에서도 실형을 기렸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장이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판결은 대법원

에서 확정됐다.
권씨가 떠난 뒤에도 유족은 A씨를 상대로 합당한 싸움을 이어갔다. 민사소송이었다. 권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A씨의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했다. A씨를 상대로 5억여 원을 요구했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해당 민사소건의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민사16부 부장 박상만은 지난해 20일 A씨에게 “권씨의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법원판례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부러뜨리고 싶어서 항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A씨가 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씨의 죽음과 A씨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라며 “이를 충실한 것 자체를 위함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과 망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망언이 범행 이후 개행하고 회사 생활에 중상미달 된 점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해 망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배상액으로 1500만 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 배상액에 민사 1000만원, 나열됐 한 2000만원, 내지 뭐...” A씨가 2023년 5월 1일, 권씨를 협박하며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했던 말이다. A씨의 딸은 현상이었다.
이런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권씨 유족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서울지법 인형형사1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린다.
유족 측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매우 속상하다”며 “법과 판사는 사법계 정의를 지키고 정의를 소중히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호소를 했다가 오해해 상처를 받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유족을 데리하는 법무법인 한스의 김태환 변호사는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형소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적극 주장을 채택”이라고 강조했다.
인제민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했다니 스톱킹과 협박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여성을 기사로 다뤘다. 헤럴드경제DB

그것밖에 없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기사가 나간 뒤 아버지는 “기사를 보고 여기자기서 연락이 왔다”며 “사는 날까지 기자님 고마움 잊지 않으려고 애쓰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바꾸는 기사가 되고 싶었다. 정치인과 기업의 비리. 누구나 알 만한 단독 기사를 쓰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

지 않았다. 단독 기사를 타사가 받아쓸 때의 짜릿함은 중독적이었다. 하루종일 신이 났다. 타사가 받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느라 하루종일 네이버 뉴스 탭에서 최신순으로 ‘새로고침’을 반복한 적도 있다.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언젠가 “가장 뿌듯했던 기사가 무엇이

냐”는 질문을 받았다. 누구나 알 만한 단독 기사는 떠오르지 않았다.

기사 속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싶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일반인에게 “사는 날까지 고마움 잊지 않으려고 애쓰겠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들을 도왔을 때의 뿌듯함이 떠올랐다.

작가 에밀 아자르는 소설 ‘가면의 생’에서 “나는 익명으로 남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익명의 시골 익명의 마을에서 익명의 여자와 익명의 사랑을 나누어 역시 익명의 가족을 이루고 익명의 인물들을 모아 새로운 익명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취지다.

본래 취지와 다르지만 이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익명의 피해자, 익명의 가해자, 익명의 피고인, 익명의 방청객의 세계가 궁금하다. 정치인, 연예인, 대기업 사건에 눈을 부릅뜨다가도 가끔씩은 A씨, B씨, C씨에게 눈길을 두고 싶다. 이들의 사건을 단편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다.

늘 하는 생각이 있다. 도둑처럼 기자가 된 것 같다. 물건을 훔쳤다는 게 아니라 자격을 훔쳤다는 뜻이다. 기자는 다른

전문직처럼 국가공인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책임은 막중하다. 도둑처럼 기자가 된 게 들킬까 봐 겁이 난다.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사하게 일하려고 애쓴다.

오늘도 법원으로 간다. 짝 찬 방청석으로 간다. 가는 길에 텅 빈 방청석도 기웃거리려 본다.

보통의 사람, 기사 속 A씨, B씨, C씨를 위해. 

헤럴드경제 안세연 기자